

『古今笑叢』에 나타난 남녀의 권력관계 연구

김 세 라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남녀의 권력관계와 서사적 함의 |
| 2. 여성에 대한 이중 잣대 | 5. 결론 |
| 3. 남성의 웃음 속에 가려진 여성 소외와 타자화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금소총』에 등장하는 주요 남녀 등장인물의 권력관계와 이에 내포된 서사적 함의와 남성 만족을 위해 여성이 철저히 배제된 사회적 시각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래서 당대 집필자의 시각과 향유자의 입장이 아닌 여성 수용자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성 문화와 성의식을 고찰하고자 했다. 그동안 ‘해학’이나 ‘골재미’로 포장된 사회적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남성들의 웃음 속에 가려진 여성 소외와 타자화 문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이야기 속에서 겪는 일들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몰랐던 성에 눈을 뜨고 고맙게도 ‘기쁨을 알게’ 해주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역전된다. 남성양반들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의 몸은 심지어 여성 스스로에게까지도 철저히 소외된다.

이는 이야기부와 논평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서사방식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데, 내용의 충돌만큼이나 이야기 속 주인공과 작자, 당대의 독자층과 현재의 독자층, 그것도 현재의 여성독자층의 판단의 괴리는 깊다.

현재의 독자들조차 선조들의 ‘해학과 풍자’, ‘경직된 시대의 엄숙성에 대한 발랄한 경종’ 정도로 평가하는 이 작품은, 그 층위 간의 간극이 단순히 시대의 물리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연구자들 시선 또한 당대의 향유계층과 의식과 다르지 않다. 오락성과 교훈성을 모두 갖춘 작품으로 해석해내려 하고, 농담에서조차 근엄한 훈계를 하며 세련되게 포장하려는 식자층의 현학적인 태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주제어: 고금소총(古今笑叢), 여성의 소외, 여성의 타자화, 수혜자, 시혜자

1. 서론

『고금소총(古今笑叢)』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모든 욕망이 과잉 억압된 당대 상황 속에 성욕이, 인간 보편의 자연스러운 욕구임을 강조하며 이것을 건강한 성과 웃음으로 평가¹⁾하기도 하고, 여성도 성적 욕망을 지니고 쾌락을 즐길 줄 아는 성적 주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조선 전기 성소화가 보여준 인간 이해의 진전²⁾이라는 두 가지 평가로 양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남성 중심주의의 시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고금소총』을 비롯한 성 소화 텍스트 속에서의 욕망과 쾌락은 남성들만의 전유물일 뿐 여성의 욕망과 쾌락은 주체성을 지니지 못한다. 성적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성리학의 권위에 도전한 ‘탈 성리학적인 모색’으로 여겨지거나

1) 이강엽, 「바보음담의 사회문화적 해석」, 『한국민속학』 33, 한국민속학회, 2001.

2) 강상순, 「조선 전기 성소화의 향유 양상과 존재 논리」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13.

‘우리 조상들의 풍류’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권력을 지닌 남성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여성에게 아주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추행과 폭력이 그저 풍류나 여유로 취급되는 『고금소총』 속 이야기가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주요등장인물의 남녀 권력관계가 지니고 있는 서사적 함의를 도출하고 남성만족을 위해 여성이 배제되고 도구화된 사회적인 시각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고의 주 연구 대상은 동양문고본 『고금소총』과 민속자료간행회본 『고금소총』이다.³⁾

2. 여성에 대한 이중 잣대

- 아내, 그리고 아내가 아닌 세상의 모든 여성

유교 이데올로기가 지배한 조선시대 여성의 성은, 남성의 욕망의 대상일 뿐 주체성을 지닌 독자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생산과 쾌락의 성을 모두 실현하려 했던 남성 지배체제는 권력 기제를 통해 여성의 성을 이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 결과 성리학적 사유 속에 자리잡은 貞/淫 -德/色의 이분적 지표는 신분적 위계와 결합되어 정숙한 사대부여성, 음란한 기생과 같은 신분에 따른 색수열리티의 배치를 낳게 된다.⁴⁾

사대부 여성의 성은 드러내서는 안되는 금기였기에 철저히 은폐되었고, 기녀나 계집종같이 마음대로 수탈 가능한 것만이 사대부 남성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아내 아닌 세상의 다른 여성 -하지만 뒷배경에 높은 신분의 아버지나 오빠나 남동생이 있는 다른 남성들이 존재하는 여성이 아

3) 시기선·유화수·이월영 역, 『고금소총』, 한국문화사, 1998.

유화수·이월영 편역, 『고금소총』, 전통문화연구회, 2014.

본문의 모든 인용문은 위 책의 번역을 따랐다.

4) 이숙인, 「정행과 덕색의 개념으로 본 유교의 성담론」, 『철학』 67, 2001, 21면.

난- 들만이 남성의 스펙트럼 안에서 다루기 쉬운,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하층민 여성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여성은 성적 욕망을 철저히 누르고 성적 주체가 아닌 ‘도덕적 주체’가 될 때만이 첩이라는 침입자에게 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도덕적 주체’로, 기녀나 계집종은 ‘성적 객체’로 존재했던 것이다. 어디에서도 여성은 성적 욕망을 지니거나 표현할 수 있는 ‘성적 주체’는 결코 될 수 없었다.

①

근래에 어떤 호사자가 **절비괄경竊婢八景**을 지었다.

첫째는, ‘굶주린 호랑이가 고기를 탐한다’고 했으니, 주인이 계집종에게 욕심 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늙은 여우가 얼음소리를 듣는다’고 했으니, 아내가 잠들었는지 엿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는, ‘쓰르라미가 허물을 벗는다’고 했으니,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는, ‘욕심 사나운 이리가 뒤돌아본다’고 했으니, 두려워 머뭇거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는, ‘백로가 물고기를 노린다’고 했으니, 계집종을 훑쳐보는 것을 형용한 것이다. 여섯째는, ‘매가 꿩을 잡는다’고 했으니, 계집종을 낚아채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는, ‘옥토끼가 약을 찢는다’고 했으니, 계집종과 더불어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여덟 번째는, ‘금계金雞가 파드닥거리며 싸운다’고 했으니, 아내와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⁶⁾

‘계집종을 넘보는 여덟 가지 광경’이라는 제목의 이 일화는 주인이 계집종을 탐하는 과정과 그 후 아내와 싸우는 과정까지를 동물에 비유하여 형용한 글이다. ‘계집종’의 자리에 아내를 제외한 낮은 신분의 첩, 기생 등 어떤 천한 여성을 넣어도 의미가 달라지진 않는다. 다만 중간에 두려워 머뭇거리는 것은 상대 여성에 대한 배려나 미안한 마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상

5) 정지영, 「조선 후기의 첩과 가족 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집, 한국사회사학회, 2004.

6) <竊婢八景> 近有好事者 有竊婢八景. 一曰餓虎貪肉, 言主翁貪婢也. 二曰老狐聽水, 言瞰室人睡也. 三曰寒蟬脫殼, 言解去衣衾也. 四曰貪狼反顧, 言恐懼遲徊也. 五曰白鷺窺魚, 形容窺婢之狀也. 六曰蒼鷹抱雉, 形容掙婢之狀也. 七曰玉兔搗藥, 言與婢講歡也. 八曰金雞鬪距, 言與室人鬪也.

황이 들킨 후 아내에 대한 염려만 있을 뿐이다. 남성이 낮은 신분의 여성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고금소충』의 프롤로그 격으로 여실히 담겨있는 이야기다.

사대부에게 아내는 여성이지만 또 여성이 아니다. 그 여성 주변에는 아버지와 오빠와 동생이라는 뒷배경이 함께 존재한다.⁷⁾ ‘가문’과 ‘그들’을 확보하고 있는 한 얼마든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부인은 어려운 존재였다. 상대 계집종에 대한 고려 따윈 존재하지 않고 부인과의 관계만 염려될 뿐이다. 만약 아내가 별 볼일 없는 집안이었다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부인에 대한 두려움은 오직 부인이 갖고 있는 가문이라는 배경과 그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부인을 보호하는 처가 가족들 때문에, 앞에서 본 계집종이나 기생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부인을 인격체로 대하거나 다른 남성 사대부들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야기 속에 늘 아내과 종/첩/기생과의 이중적 태도를 늘 견지하는데 이는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남자들이 부인을 박대하고 창기를 탐닉하는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부인은 서로 공경하고 분별해야 하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존경할 수는 있을지언정 희롱할 수는 없는 것이오. 그러나 창기는 음란하고 친하게 놀면서 못하는 것이 없소. 공경하면 소원해지고 친근하면 가까워지는 것이 이치상 당연한 것이오.”⁸⁾

- 7) 흔히 여성의 도리는 ‘三從之道’ 라는 말로 표현되고 이는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의 생애를 상징한다. 동시에 삼종지도는 조선사회의 여성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준수해야 하는 규칙이었다. 가부장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는 남성 가부장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부장의 권력과 경제력의 혜택을 입어야만 정상적인 가족의 일원이자 나아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순차적으로 섬겨야 하는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이란 여성에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증해주는 존재였다. 특히 혼인 후의 여성에게는 낮은 식구들 사이에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켜 줄 최소한의 존재가 필요했다. 따라서 여성들은 제도의 강요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립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다.

③

성생成生이 아내의 유모 딸과 사통하고나서 변명하기를

“순임금 같은 대성인도 요임금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았는데, 당시에 이 이론이 없었으며 후세에는 법으로 여겼거늘, 하물며 천한 유모의 자식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소?”

“당신이 순임금이시오?”

“순임금은 무엇이오? 사람이오. 나는 무엇이오? 사람이오. 그러니 나는 곧 순임금이오.”9)

④

“아내는 일단 같이 살게 되면, 한결같이 종신토록 마음을 바꾸지 않지만, 첩은 예를 갖추어 맞아들인 것이 아니고 사사로이 통혼했기 때문에 이리를 따라 좇고 배반하지요. 이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10)

②-④의 이야기 속의 남성 화자들은 아내와 기생/첩/계집종의 관계를 분명히 구분한다. 표면상으로는 아내에 대한 신의와 존중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황당한 변명에 불과하다. ‘창기’ ‘천한 유모의 자식’ ‘사사로운 통혼’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녀들은 그저 욕망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도 순임금에 비교하는 궤변을 통해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를 이끌어 군자연하는 태도는, 양반들의 이중적인 허위와 위선을 여실히 보여준다.

-
- 8) <妻不欲尊> 有士子喜狎妓, 室人語士子曰“男兒之薄室人而溺娼兒, 何故.” 士子曰“室人有相敬相別之義, 可尊而不可狎. 至於娼兒, 逞情縱慾, 淫戲昵翫, 無所不至. 敬則疎, 昵則親, 理之然也.” 室人勃然曰“吾欲尊乎.” 亂擊不已.
 - 9) 有成生者, 私室人乳媼之女. 室人怒曰“雖有貴賤之分, 乳媼之女即吾弟子, 何亂倫如是.” 成曰“舜大聖人, 妻堯之二女, 當時無異議, 後世以爲法. 況賤媼之遺體乎.” 室人曰“子亦舜乎” 成曰“舜何. 人也. 余何. 人也. 吾即舜也.”
 - 10) 有上林苑書吏, 偷喫供進林檎一箇, 受杖八十於刑曹, 泣語人曰“吾不愧本妻, 只愧新妾矣.” 人曰“何愧新妾, 不愧本妻.” 吏曰“妻者一與之齊, 終身不改 妾者非聘而奔, 以利爲向背者也. 是以然耳.” 俗號畏妾者曰上林書吏.

⑤

한 향군鄉軍이 그의 아내에게 옷을 벗게 하였더니, 삼복 여름에 김맨 나미지 피부색은 거칠고 검었으며 그 사이에 소금꽃이 띠를 두르고 있었으니, 예쁜 게 단장하여 저절로 음란한 생각이 들게 하는 여자와 어찌 같을 수 있었겠는가? 그 향군은 아내의 살진 몸을 보자 심분 깊었던 정염이 구분쯤 사라져 버렸다. 그렇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기도 어려웠는지라, 그는 말울음 소리를 내며 발로 차는 놀이를 아내에게 가르쳐 주고는 아내를 타고 방사를 치르니, 아내는 분탕한 정염이 발동하여 부지불식중 맹렬하게 발길질을 해대었다. 이에 몹시 성이 난 향군이 주먹으로 아내를 때리며 말하였다.

“정말로 염증나는데도, 내가 괜한 짓을 했지!”

부목자副墨子是 말한다.

“아!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형벌은 대부까지 올라가지 않고 예법은 서인에게까지 내려가지 않는다’고 했으니 어찌 이와 같은 부류는 예법을 지키라고 책하겠는가? 그러나 역易에 ‘남녀는 진실로 천지의 대의大義’라 했으니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면서 도리어 우마가 흘려하는 짓을 배우다니, 이 어찌 패륜이 아니겠는가!”¹¹⁾

이 이야기는 위의 ①-④의 인물들과 신분이 다르고, 또 ‘부목자’라는 존재의 평이 등장한다. 부부관계에서 음란한 행동이 허락된 것은 낮은 신분이기에 가능했다. 양반들은 ‘여성이 아닌 어려운 아내’와는 기생이나 첩이나 계집종에게 했던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오직 그럴 수 있는 것은 ⑤의 낮은 신분의 남성이었는데, 그에게 조차 아내와 여자는 분리된다.

여성은 남성의 쾌락의 대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적 욕망을 드러낼 수도 없는 존재였다. ⑤ 이야기 속의 아내의 욕망은 ‘분탕한 정염’으로 평가 절하되고 심지어 그 욕망을 드러내는 순간, 남편에게 맞는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한번 매질을 통한 심판을 받고, 논평부에서 또 한번의 판결을 받아야 했다. ‘이와 같은 부류’에는 인륜 도덕을 기대할 수 없는 금수같은

11) 有一鄉軍，寒夜巡邏，見深巷長廊，燭影熒明。時聞男女戲鬪之聲，乃屏息窓外穴壁窺視，則有年少美男女作房事 而布列美饌，女爲牝馬，男爲牡駒，簫簫其鳴，淒淒其雨，時吃美饌，或輕戲踢，蠟影焯焯，雪膚豐盈。其人健羨于心曰，“吾歸吾家，亦當爲此矣。”副墨子曰，“噫。記云‘刑不上大夫，禮不下庶人’，何責禮防於此類，而易稱男女，正天地之大義，則人所以異於禽獸者，以其有倫也。人而反學牛馬之相風，豈不悖哉。”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하층의 여성은 신분계급이라는 일차 차별에 이어 여성이라는 이차 차별로 인해 ‘이중 타자화’ 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고금소총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스토리인 강간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즐거움을 느끼는 사건이라는 것, 담화 상에서 나타나는 성관계에서 주로 재현되는 것은 남성의 쾌락이 아니라 여성의 쾌락이지만 이것은 남성 활약의 지표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남성들의 쾌감을 자극하고 남성의 웃음을 야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¹²⁾

양반의 행동은 함부로 꾸짖을 수 없기에 논평부에서 근엄한 목소리로 훈계할 수 있는 것은 신분이 낮은 존재들이었다. 결국 남성 논평자가 같은 남성 양반의 우습고 괴이한 행동에는 웃음으로 동조하거나 침묵하지만,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남성에게는 깔아뭉개고 희화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수위로 비난한다. 사대부 남성이 천한 여성에게 하는 것은 풍류이고 재미지만 하층 남성들이 하는 것은 ‘우마가 흘레하는 짓’ 이거나 ‘패륜’이 되어 버린다. 관습적 내지는 장식적 표현으로 ‘권계’를 강조한 것으로 보기에는 비판의 표현이 배타적이고 차별적이다. 사대부 남성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표현을 어리석은 바보 양반이나 신분이 낮은 남성에게는 거칠게 퍼붓는다. 낮은 계급의 남성에게도 이러한데 천한 계급의 여성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야기부의 주동인물이 낮은 계급의 여성이고 그의 대상이 천한 남성일 때 논평부의 질타의 표현은 이야기 속 성애 표현의 수위만큼이나 노골적이고 적나라하다.

3. 남성의 웃음 속에 가려진 여성 소외와 타자화

- 수혜자와 시혜자의 관점

강간을 소재로 삼고 있으면서도 철저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12) 류정일, 「성소화 텍스트 향유와 성적 정체성」, 『구비문학연구』 제25집, 한국 구비문학회, 2007.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점을 견지하는 폭력성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사암思菴 박순朴淳은 거동과 용모가 아름답고 밝았으며 성품 또한 청렴하고 결백하였지만, 계집종 범하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여 밤만 되면 결채 방을 두루 훑쓸고 다녔다. 이름이 옥玉이라는 계집종이 있었는데, **생김새가 지극히 추한지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유독 공만이 그녀를 범하였다.** 혹자가 그 사실에 대해 비난하자 공이 웃으면서 말했다.

“저 아이는 진실로 가련하오. **내가 아니라면 누가 그 애를 가까이 해주겠소.**” (....중략....).

“자네는 『예기禮記』도 읽지 않았나? ‘군자옥불거신君子玉不去身’이기 때문에 남겨둔 것일세.”

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깔깔 소리내어 웃었다.¹³⁾

②

백사白沙 이 상공相公이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였다. 신흠 초에 한 계집종을 눈여겨보고, 권율에게 청하였다. (....중략....)이불을 당겨 들어올리게 하니, 계집종이 이불 안에서 떨어졌다. 이를 본 백사는 **빙긔 웃으면서 말했다.**

“저 벌거숭이 계집종은 과연 감추기 어렵네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¹⁴⁾

③

판서 송언신은 본성이 여색을 좋아하였다. 스스로 말하기를 평생에 반드시

13) <文以禮經> 朴思菴淳 儀容美皙 性且廉潔 而酷喜狎婢 夜遍廊房 有一婢 其名玉 而貌極醜 人無顧者 公惟狎之 或者譏之 公笑曰「彼誠可憐 非吾誰復近之」及其聘家分財之日 公不送夫人 又不受文卷 又聞之戲曰「公若是其無累於財產 而獨留玉婢何也?」蓋玉來自公聘家者也 公厲聲曰「君尚不讀禮記耶? 君子玉不去身 故所以留之」一座胡虜

14) <難匿赤婢> 白沙李相公, 贅於權都元帥慄. 新婚之初, 屬目一丫婢. 請權曰, “願得靜處, 專心讀書.” 權許之. 白沙始遂計, 每與之私. 一日夜睡美起晏, 權知之, 携客到其房. 白沙蒼黃, 以衾裹其婢, 置之一隅. 俄而客至相繼, 權曰, “房窄此衾可移置架上.” 使人攀舉, 婢從衾裡而墮. 白沙莞爾笑曰, “赤身他婢, 果難匿也.” 一座見齒.

천(千) 명을 채우리라 하고 **비록 병든 할머니 목은 흑이 있는 여자라도 가리지 않은 까닭에, 물건 파는 여자가 나물 캐는 아낙네**라고 해도 감히 그 동네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밤이 깊어 공이 옷을 추켜 잡고 들어 가 그 어미를 친압하자, 어미가 도둑이라고 여기고 소리를 내었는데 공이 입을 막으며 말했다.

“나는 방백(方伯)이지 도둑이 아니다.”

어미는 위세에 겁먹어 공이 하자는 대로 응하여 주었다.

그 뒤에 호장이 이웃 사람과 싸우는데 이웃 사람이 이렇게 꾸짖었다.

“너의 하는 짓이 이러하니, 네 아내를 방백이 친압하여 마땅하지.”

그러자 호장이 말하였다.

“내 처가 예쁘니까 방백이 가까이하였지, 네 처같이 미운 여자였다라면 방백이 틀림없이 침을 뱉었을 게야.”

듣는 자들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¹⁵⁾

①-③에 등장하는 남성인물인 박순도 이항복도 권율도 송언신도 그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었다. 유명한 인물들의 일화의 마지막은 설사 그것이 상투적인 마무리라 할지라도, 모두들 껄껄 웃거나 이를 드러내고 크게 웃거나 손뼉을 치며 웃는다. 대부분은 소위 ‘풍류’와 ‘해학’의 웃음이라는 이들의 웃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영화를 보며 모두 다 박장대소하는 부분에서 그 언어 특유의 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자 웃지 못하는 소외감과는 전혀 다르다. 모종의 당연히 합의된 그들만의 카르텔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것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들에 등장하는 여성들이다. 계집종과 호장의 딸이나 아내는 이 웃음 속에 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낄 수가 없다. 여성에 대한 배려는 고사하고 여성이라는 존재자체가 아예 없다.

먼저 ①의 이야기에서 첫 단락에 박순의 외모와 성품에 대한 칭송을 한 후, 계집종을 범하는 그의 겉모습과 사회적 위상과는 위반되는 괴이한 행태

15) <戶長誇妻> 宋判書言慎性好色 自言平生必欲滿千數 雖瘼母宿瘤無所擇故 賈女採婦不敢入其洞 嘗按關東巡抵原州與原倉時 公館灰於兵火 宿戶長家(俗以邑中首吏爲戶長) 戶長有少女 公注意流眄而女不應 是夜公潛察其母女所臥處 女慧者也 亦知公注目之意 與母換臥 及夜深 公攬衣而入狎其母 母意謂盜發聲 公掩其口曰「我乃方伯非盜也」其母怯威而應之 後戶長與隣人鬪 隣人叱曰「汝人事如此 宜乎汝妻爲方伯之所狎」戶長曰「我妻美故方伯近之 若汝妻之醜惡 方伯必唾之」聞者拍掌

를 설명한다. 하지만 ‘생김새가 지극히 추한지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유독 공만이 그녀를 범’한 것을, 겁탈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시혜와 수혜의 관계로 역전시키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저 아이는 진실로 가련하오. 내가 아니라면 누가 그 애를 가까이 해주겠소.’라는 말이 바로 이를 입증한다. 못생긴 계집종을 범하면서도 평생 남자 구경 못해볼 것인 그녀에게 자신이 ‘性的 恩惠’ 베풀어주는 소위 ‘性恩’을 내린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예기>를 운운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킨다.

②의 이야기에서도 위와 대동소이하다. 이항복이 권율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므로 권율의 사위일텐데, 장인 앞에서 계집종과의 사통을 들켰으면서도 멋쩍게라도 웃을 수 있는 이항복과,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딸이 아닌 계집종과 사통했는데도 노발대발대지 않고 망신을 주는 차원에서 끝난 권율의 너그러운 웃음도 그것을 무마하는 이항복의 변명애의 웃음에도 전혀 동참할 수가 없다.

③의 일화에서는 후안무치의 정점을 보여준다. 호장의 어린 딸의 영리한 눈치가 강조될 뿐 겁간을 당하면서도 권위에 어쩔 수 없었던 아내의 두려움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호장은 겁간을 당한 아내를 놀리는 친구의 말에 예뻐서 그런 일을 당했고 못생겼으면 당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말 속에 위의 앞 일화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된 여성에 대한 시선이 압축되어 있다. 강간이나 겁탈을 당하는 여성의 입장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호장의 말을 통해 이것조차 시혜 수혜의 관점으로 수렴된다. 게다가 호장은 이 사건과 무관한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상관에게 겁간을 당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저런 아버지와 남편, 손뼉을 치고 웃는 자들을 바라보며 딸과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왜 이런 성 소화담을 그저 해학이나 골게미 정도로 단순하게 평가했을까 생각해보면 당대의 집필자들과 향유자의 입장에서 가능했을 지도 모르나, 지금을 살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읽는 여성 수용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들을 읽으면, 게다가 서문과 발문에서 그토록 강조하며 운운하는 여러 선현들의 고사와 사서삼경의 인용은 단순한 아이러니함을 넘어 그로테스크하기까지

하다. 그로테스크 특유의 일상의 전복과 이질적인 것의 충돌에서 오는 미학적 특질이 해학과 풍자일텐데, 당대 작자가 비판의 의도를 갖고 쓰지 않았음은 자명한 일이다. 자기 성찰의 결과라면 비판의 대상이 사대부 자신들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권계와 해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면면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자기반성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훈계를 하는 주체와 훈계를 듣는 대상이 위선적인 사대부계층, 한 대상으로 초점화되어 강조되고 부각된다. 질편한 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함께 깔꺼리다가 참석자 중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가 어색하여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히 정색하며 훈계하는 듯한 ‘맨스플레인(mansplain)’이 도처에 현저하다.

위의 일화보다는 덜하지만 아래의 일화에서도 우리는 ‘웃음’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노골적이지 않고 세련되게 포장되어 있기에 ‘문학적인 비유나 상징으로 ‘고준담론’을 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이곳에도 남성들만이 웃음의 주인공이다. 당대의 거물 문인들이 모여 있는 웃음의 잔치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은 결국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맥락의 문제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④

송강 정철鄭澈, 서에 유성룡柳成龍이 일찍이 교외에서 벗을 전송하였는데, 그때 백사 이항복李恆福, 일송 심희수沈喜壽, 월사 이정구李廷龜 세 사람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술기운이 오르자 그들은 소리의 품평品評에 대해서 논하였다. ..(중략)... 허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기로는, 맑게 갠 밤 동방洞房에서 가인佳人이 치마 벗는 소리만 한 것이 없지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큰소리를 내며 깔깔 웃었다. 16)

16) <喜聽裙聲> 鄭松江柳西厓, 嘗送客郊, 時李白沙沈一松李月沙三人亦參座. 酒半論聲之品. 松江曰, “清宵朗月, 樓頭暹雲聲爲好.” 一松曰, “滿山紅樹, 風前遠岫聲絕好.” 西厓曰, “曉窓睡餘, 小槽滴聲尤妙.” 月沙曰, “山間草堂, 才子詠詩聲亦佳.” 白沙笑曰, “諸子所稱之聲俱善矣. 然令人善聽, 莫若洞房良宵, 佳人解裙聲也.” 一座大噱.

⑤

주는酒隱 상공相公 김명원金命元이 일찍이 북관을 순찰하다가 한 읍에 이르러 방기房妓를 몹시 사랑한 나머지, 그 다음날 아침 삼취三吹가 이미 지났는데도 기녀를 끼고 누워 일어날 줄 몰랐다. 군관軍官은 출발이 너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여 문 밖에 무릎을 꿇고 앉아 높은 목소리로 고하였다.

“사취四吹!”

김명원이 비웃으며 말했다.

“어리석은 놈! 비단 사취가 아니라 십취十吹를 해도 내가 가고 싶어야 가지.”

군관이 입을 가리고 웃으며 물러났다.17)

④와 ⑤의 웃음은 분명히 다르다. ⑤의 웃음은 기녀에 정신이 팔려 공사도 구분 못하는 상관을 향한 부하들의 비웃음이다. ①-④까지의 웃음들은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동조와 합의의 웃음이었다.

다음은 ‘수혜자와 시혜자의 상황’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위 일화들과는 달리 ‘여성은 있다’. 그러나 희화화되고 비하된 여성만이 있을 뿐이다.

⑥

시골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계집종 한 명을 데리고 농사지으며 살면서 매번 소를 세내어 받을 갈았다. 이웃에 사는 홀아비가 얼룩소를 길렀는데, 그 소로 풀을 팔았다. 과부가 계집종을 시켜 소를 좀 빌려 달라고 간청하자 소 주인이 계집종을 희롱하며 말했다.

“네가 나와 하룻밤을 함께 즐긴다면 마땅히 소를 빌려 주마.”

계집종이 웃고는 돌아와 그대로 아뢰자 과부가 계집종을 보내어 동침하게 했다.

기쁨을 나눔에 이르자 소 주인이 말하는 것이었다.

“양물을 넣고부터 일을 마칠 때까지 ‘아롱우’ ‘어롱우’ 두 말만 차례로 읊어라. 다른 말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나면 마땅히 소를 빌려주겠다. 할 수 있겠니?”

속말에 작은 얼룩을 아롱이라 하고 큰 얼룩을 어롱이라 하는데, 그 소의 색이 얼룩이었기 때문에 희롱한 것이었다. 마침내 더불어 일을 치르는데 처음에

17) 請加四吹 酒隱金相公命元, 嘗按北關, 巡到一邑, 酷愛房妓, 至翌朝三吹已過, 而擁妓不起. 軍官閱其日晏進, 跪戶外高聲告曰, “四吹.” 金笑曰, “癡哉爾也. 非但四吹, 雖告十吹, 吾欲行乃行.” 軍官掩口而退

는 홀아버가 시킨대로 넣을 때는 ‘아롱우’ 하고 빼낼 때는 ‘어롱우’ 하였지만, 흥이 달아오르자 ‘어롱어롱’을 연거푸 부르더니 이어서 ‘알알’거리다 일을 마쳤다.

소 주인이 말하였다.

“처음에는 두 말을 차례로 하면서 약속을 지키다가, ‘어롱’ ‘어롱’을 연이어 반복하더니 또 그 반복하던 말도 잊고서 ‘알알’거리다가 끝났다. 그러니 소를 빌려 줄 수 없었다.”

소 주인은 이처럼 고집하면서 소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과부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분개해 계집종을 꾸짖으며 말했다.

“두 가지 말을 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약속을 어겼단 말이나.

소를 빌리지 못하면 어떻게 살겠느냐. 내가 해보겠다고 청해 보겠다.”

마침내 과부는 소 주인과 약속하고 가서 시험해 보았다. 처음 교합할 때는 감정을 억제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는 ‘아롱우’ ‘어롱우’를 십여 차례 하였지만, 운우지정이 무르녹자 그녀 또한 ‘어롱’ ‘어롱’만을 연거푸 외치더니 마침내는 ‘알알’거리다 끝났다. 소 주인이 또한 말하였다.

“당신도 약속을 어겼소. 순서를 틀렸을 뿐만 아니라 ‘알알’하다 끝마쳤으니, 내가 어찌 소를 빌려주겠소?”

주인은 이렇게 고집하면서 소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¹⁸⁾

이 이야기의 핵심은 소를 빌리느냐 빌리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성관계를 나눌 때의 여성의 쾌락이다. 소와 여성의 육체가 거래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공정하고 대등하게’ 교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혜자와 시혜자의 관계로 소급된다. 여성(계집종과 과부)들은 소를 빌리기 위해 잠자리를 갖는데, 절정의 환락에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한다. 둘이 나누

18) <關鬪胥失> 鄉中有一寡女，率一婢作農爲生，每貫牛耕田，隣居鰥夫，畜斑牛賣備。寡女使婢懇求其牛，主戲其婢曰，“汝與我同歡一宵，當借之。”婢笑而回報，寡女送婢同宿。及至講歡，牛主曰，“自納鳥至畢，惟以阿籠牛於籠牛兩言，循次誦之，無問他辭，然後吾當借牛，汝可能之乎。”蓋俗語以小斑爲阿籠，大斑爲於籠，以其牛色斑故戲之。遂與行事，始則如其言，納時則曰，“阿籠牛”出時則曰，“於籠牛”，至與酣，疊呼於籠於籠，仍至關鬪而畢。牛主曰，“始以兩言循次爲約，而汝以於籠於籠疊言，又失疊言而以關鬪終之，吾不可借牛。”堅執不許。寡女聞而慨之，責其婢曰，“兩言無訛何難，乃違其約。若不得牛，奈生理何。吾請自當。”遂與牛主約 往試之 始交也 忍情猛省 作阿籠牛於籠牛十餘回 至雲雨方濃 亦疊呼阿籠阿籠 終至鬪鬪而畢 牛主又曰 “君亦違約，非但失次以鬪鬪終之，吾何以借牛。”堅執不許。

는 사랑의 기쁨은커녕 남성의 쾌락은 사라지고 오직 여성의 열락만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위악적인 유희자체에 중독되거나 도취되며 철저히 사물화된다. 남성은 기쁨을 알려주는 존재일 뿐이고 여성은 그 기쁨을 일방적으로 받는 존재로만 나타난다.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왜곡된 묘사는 남성들이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였다. 때문에 여성 스스로에 의해 사물화되는 여성성은 일견 남성들의 나르시즘적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같이 폭력적인 남성중심적 시선에 의해 여성 현실과 내면의 왜곡은 그로테스크한 재현방식으로 구현된다. 여성의 육체가 얼마나 억압받고 일그러져 있는가.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위악적 포즈나 공포의 비명을 내지르는 것이 아닌 환희와 극치의 기쁨을 맛보는 것으로 과장된다. 현실의 악몽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몰랐던 성에 눈을 뜨고 고맙게도 ‘기쁨을 알게’ 해 주는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로 역전된다. 남성양반들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의 몸은 심지어 여성 스스로에게까지도 소외되면서 철저하게 분리된다.

위의 각각의 이야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아래와 같다.

- ㉠ 지체 높은 유학자 소개
- ㉡-① 신분이 미약한 종이나 첩 기생 그냥 아낙과의 질편한 정사
- ㉡-② 강간이나 겁간
- ㉢ 교훈적인 훈계나 꾸짖음으로 마무리

㉠→㉡→㉢으로 갈수록 결국은 양반들의 적나라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혹은 여성을 다루는 방법이 여과 없이 나타난다. 운우지정의 정당화를 위해 적당하게 변명되거나 어그러진 여성을 혼내고 교화시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왜곡된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회화화되고 비하되며 문제성을 심각하게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런 남성에게 굴복하고 오히려 감사해 한다. 만약 여성의 성욕을 인정하거나 긍정하고 싶다면 남성 앞에 무력화되는 모습으로 묘사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저 요즘의 포르노그래피에 묘사된 남성판타지 혹은 여성혐오라 공공연하게 불리는 여성의 모습만 반복, 확대, 재생산된다.

결국 위 일화들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거나, 아예 침묵하거나, 아니면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미쳐있는 존재들이다.

4. 남녀의 권력관계와 서사적 함의

『고금소총』은 성 소화담을 중심으로 남녀의 지위관계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유형	권력관계 (男-女)	내용
(가)유형	上-上	존경받고 싶지 않은 아내. 어떤순 10
(나)유형	上-下	성생이 아내의 유모 딸을 겁간하고 순임금의 고사를 들어 핑계를 댈. 동국골계전 67
		서리가 아내와 첩을 구분하여 부끄러워 함. 동국골계전 87
		호장의 아내 사랑. 동국골계전 15
(다)유형	下-上	영금한 머슴을 치료한 과부. 어떤순 2
(라)유형	下-下	바보남편과 사슴. 속어면순 6
		음탕한 첩이 도둑을 가두다. 속어면순 7
		교활한 아내가 말을 풀어놓다. 속어면순 10
		알알거리다 다 잃다. 속어면순 13

남녀의 차별은 권력관계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정옥과 훈계가 상충되는 이야기부와 논평부와의 모순에서 형식적 수평을 이루며 완성된다. 논평은 한 문학의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으로 도덕적 의미를 생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

야기부와 논평부의 관계에서의 도덕적 의미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은 인물의 특성과 관련된 지점이다. 그러나 본고는 한문학의 장르적 측면에서 논평을 살펴보고자 함이 아닌 논평부와 이야기부와의 이질감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아이러니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서거정이 이 전(傳)을 지음에 애초부터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뜻을 두지 않았고, 다만 세상에 대한 염려로 울직한 마음을 풀고자 잠시 이와 같이 한 것일 뿐이요, 하물며 성인(聖人)이신 공자께서도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이 마음 쓸 곳이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하셨으니, 이 전도 또한 서거정이 마음 쓸 곳이 없는 것을 스스로 경계한 것일 뿐이다.”

이 말을 듣고 내방객은 웃으면서 떠나갔다.¹⁹⁾

우리의 공자님께서도 바둑·장기를 두는 것이 마음 쓸 곳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셨는데, 이 골계전을 바둑·장기에 비교한다면 그보다 만만 배나 낫지 않겠는가? 시경에 가로되, ‘우스운 말솜을 잘도 하시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에 가로되, ‘한 번 당기고 한 번 늦추어 준다’고 하였으니, 지금 전하는 글이 익제(益齊)의 역옹패설(穢翁稗說)과 더불어 어찌 해동(海東)에 만세(萬世)토록 영원히 전해지지 않으리오.²⁰⁾

유명한 문인지식인인 작가가, 유명한 당대 사대부를 등장시켜 비천한 여성들과 음란한 짓들을 버리는 이야기를 나열하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여성을 비난하며 근엄하게 꾸짖는 장면은 복잡다단한 일면이 숨겨져 있다. 단순하게 요약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신분이 높은 유학자가 미천한 신분의 여성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겁간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쾌락과 만족으로 끝맺음을 맺고 거기에 대해 근엄한 목소리

19) 居正巽然改容謝曰「子之言是也 然子不聞善戲謔兮 文武弛張之道乎 齊諧志於南華滑稽傳於班史 居正之作是傳 初非有意於傳後 只消遣世慮 聊復爾耳 況孔聖以博奕爲賢於無所用心者 此亦居正無所用心之自戒爾」客笑而去.

20) 吾夫子以博奕賢於無所用心 以此比之博奕 寧不萬萬愈乎 詩曰 善戲謔兮 記曰 一張一弛 今傳文 豈不與益齋稗說 永流傳於海東萬世也哉 成化紀元之十八年夏五 訥齋老人 南原 梁誠之書.

로 야사씨나 태사공의 목소리를 빌어 공자나 논어나 시경을 예로 들며 꾸짖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²¹⁾

그러므로 이야기부는 오락이고 논평부는 교훈이고, 이 오락과 교훈의 충돌로 인해 다양한 담론이 생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나, 작가층이 조선시대 전통적인 유가 사족 집안 사대부들이기 때문에 성소화를 기록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서 소화 속에서 교훈을 찾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²²⁾이나 과거시대에는 성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의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스스로없이 해소할 수 있었고 특히 조혼시대에 있어서 남자에게 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행위를 동작하기 보다는 이야기라는 전달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음을 인식한 때문²³⁾이라는 그간의 평가는 무척 편협하고 단선적인 분석이었다. 좀더 면밀한 분석은 다음의 이야기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①

야사씨가 말한다.

“깊은 규방에 있는 여자는 본래 남녀 간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법인데도, 단 한 번 운우지정을 나눈 뒤 신랑의 수단이 능숙하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으니, 이는 또한 ‘성인이 성인을 알아보는 것’과 같다.”²⁴⁾

②

사신은 말한다.

21)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같은 진정한 여성에 대한 고민과 진정성있는 이해라기 보다는 웃고 즐기다가 교훈적 마무리의 첨언조차 왜곡되고 우스운 모습 그것이 그로테스크적이다.

22) 류정월, 「명엽지해 평가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7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23) 황패강, 「고소설에 나타난 육담의 의식과 세계관」, 『한국 육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

24) <贊郎熟手>一處女, 合卺翌日, 郎家奴拜謁于女, 女問曰, “汝家郎君有妾否.” 奴曰, “無也.” 女曰, “汝何諱於我也. 若果無妾, 舉操之法, 何其熟耶.” 野史氏曰, “深閨之女, 本不知陰陽之事, 而一經雲雨之歡, 便知手段之熟, 抑猶聖人能知聖人歟.”

“이 여자는 몰래 암말과 수말을 풀어 놓아서, 그 남편이 말을 뒤쫓아 멀리 간간 것을 이용해 그 틈을 타 음욕을 마음대로 채웠으니, 그 교활한 피가 심하다. 소인이 입금을 속이고 간사한 짓을 행하는 것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25)

③

사신은 말한다.

“심하도다, 시골 백성의 어리석음이어! 그림으로 그려 놓은 사슴이 저절로 선다는 것은, 참으로 속일 수 없는 술책인데도, 마음과 정이 미혹된 나머지 리어 아내가 이치에 통달하였다고 칭찬하였도다. 아! 세상에서 우물尤物에게 미혹되어 크게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작게는 몸을 망치게 하면서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백성과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는가?”²⁶⁾

④

사신은 말한다.

“심하도다! 음과 양이 서로 감응함이 신속함이어! 세 여자가 계집종의 말을 한 번 듣자 마음이 쉽게 동하여 병어리의 불룩한 것을 시험해 보려다, 끝내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말았으니, 비루하도다! 禮經에서 남녀 사이의 분별을 가장 엄하게 다루었으니, 성현들이 경계하고 삼가게 한 뜻이 어찌 우연이겠는가!”²⁷⁾

⑤

사신은 말한다.

“옛 말에 이르기를, ‘크게 간사하면 충직스러운 듯하다’고 하였는데, 그 말은

-
- 25) 夜深後, 奴輩及其夫睡方熟. 生欲潛入而未敢. 女會其意, 托便旋出外, 先放雌馬, 盡解諸雄馬之羈, 還入滅燈而臥. 俄而群雄逐一牝, 騰蹕而去, 馬主各自逐馬倉黃而出, 馬益驚奔, 不可及矣. 馬主皆遠去不還, 女乘其隙投入于生袋中, 盡情繾綣, 極其歡噉. 臨曉乃還臥於初臥之處, 其夫捉馬方還, 不知其妻已與生結歡矣. 史臣曰, “此女潛放牝牡, 使其夫迫遽遠出, 偷其隙而肆其慾, 其巧計甚矣. 小人之欺君行私, 類是矣.”
 - 26) <蚩氓判鹿> 史臣曰, “甚矣, 村氓之蚩蚩也. 畫鹿自立, 固非可欺之方, 而迷心惑情, 反譏其婦之達理. 噫, 世之蠱於尤物 大而亡其國 小而喪其身 終不覺悟者 與此氓何異哉.”
 - 27) 史臣曰, “甚矣, 陰陽相感之速也. 三女一聽婢言, 其心易動, 欲驗啞者之凸, 卒汚其身 陋矣. 禮經最嚴內外之別, 聖賢戒慎之意, 豈偶然哉.”

이 종을 두고 말함이다. 음탕한 첩이 잠방이를 벗고서 내를 함께 건너간 것은 벌써 종의 음욕을 도발하려는 것이었고, 교활한 종이 짚신을 걸어 두고서 거짓으로 찾는 척한 것 또한 음탕한 첩의 뜻을 헤아리고서 한 것이었다. 남녀가 서로 도적이 되어서 마침내는 더러운 행동을 하고 말았으니, 극형을 받고도 남음이 있는 죄라고 이를 만하다.²⁸⁾

⑥

사신은 말하노라.

남녀의 사이에는 먼저 그 뜻을 살피지 않고서 행하는 것이란 없다. 시골 여자가 배가 아프다고 한 것은 머슴이 자기를 원하면 응하고자 함이었고, 머슴이 여자의 배를 낫게 해 준다고 했던 것은 이미 주인 여자의 뜻을 헤아리고 그랬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명분을 잊고 욕심대로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 그 죄는 죽이고도 모자라지 않겠는가?²⁹⁾

위에 등장하는 논평의 목소리는 각각의 서문 발문을 썼던 남성 사대부의 분신들이다. 남성이 성에 능숙한 것은 노련한 여유지만 처녀가 성을 아는 것은 망측하고 해괴한 일이기 마련이다. 잘 알고 있는 것에는 가차 없는 비난과 잘 알지 못하는 것에는 내숭이라는 이중적 잣대로 인해 결국 어떻게 하든 여성은 그 상황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미 한문 야담 문학 속 논평의 역할을 ‘비판에 대한 방어기제로의 활용, 일화요약을 통한 해학 강화, 경전의 전고를 활용한 주제 부연’으로 설명한 바 있다.³⁰⁾ 그러나 이는 단선적인 평가일 뿐, 논평에 권계와 해학을 더한다 해도 이 작품에서 의미가 강화되지도 교훈이 더해지지도 않는다. 그저 동어 반복일 뿐인 부연설명을 구지 한 단락 논평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28) <淫妾囚盜> 史臣曰 “古語云, ‘大奸似忠’, 其此奴之謂也. 淫妾之脫禪同渡, 已啓黠奴之慾. 黠奴之掛鞋伴覓, 亦揣淫妾之情. 男女相賊, 卒成穢行, 可謂服上刑而有餘事也.”

29) <詐痛要歡> 史臣曰 男女之間 未有不先探其意而行之者 村女之痛腹 欲中雇工之願也 雇工之醫腹 已料主女之意也 兩人忘其名分而肆慾無恥 可勝誅也.

30) 백진우, 한문 야담문학 속 논평의 양상과 기능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제6집, 고전한문학회연구학회, 2009.

①-⑥의 등장하는 이야기부의 주동 인물들은 모두 천한 신분의 여성들이다. 성적 호기심에 대해 감히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자신들의 본능적인 성적 욕망을 발화하고 상대에게 충동질할 뿐만 아니라 리드하며 행동한다. 그에 따른 평가들은 논평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사대부 남성에게는 ‘풍류’였던 것이 ‘음란함’으로 갑자기 바뀌어 이들은 ‘淫婦’, ‘淫女’, ‘淫婆’로 불린다. ‘淫’이란 단어는 감히 사대부 남성들에게는 쓸 수 없는 용어이고 ‘好色’ 정도의 단어로 순화된다. 추악한 것을 포장하는 미화나 순화 또한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왜곡일 뿐이다.

4. 결론

이 논문은 『고금소총』에 등장하는 주요 남녀 등장인물의 권력관계와 이에 내포된 서사적 함의와 남성 만족을 위해 여성이 철저히 배제된 사회적 시각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 결과 당대 집필자의 시각과 향유자의 입장이 아닌 여성 수용자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에서 성문화와 성의식을 고찰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해학’이나 ‘풍류’, ‘골계미’로 포장된 사회적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남성들의 웃음 속에 가려진 여성 소외와 타자화 문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야기부와 논평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서사방식의 불일치는 내용의 충돌만큼이나 이야기 속 주인공과 작자, 당대의 독자층과 현재의 독자층, 그것도 현재의 여성독자층의 판단의 괴리는 무척 깊다. 당대의 작자층과 향유층 간에는 별다른 해석이나 이해의 충돌 없이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사족처럼 상투적인 교훈을 첨가하는 태도는 음담패설의 농담에 조차 교훈적인 담론을 이끌어내려는 강박증 수준의 집착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독자들조차 선조들의 ‘해학과 풍자’, ‘경직된 시대의 엄숙성에 대한 발랄한 경종’ 정도로 평가하는 이 작품은, 그 층위 간의 간극이 단순히

시대의 물리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연구자들 시선 또한 당대의 향유계층과 의식과 대동소이한 것은, 오락성과 교훈성을 모두 갖춘 조건으로 어떻게든 해석해 내려 하고, 그저 우스운 이야기에도 근엄한 훈계를 하며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포장하려는 식자층의 현학적인 태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 괴리와 간극을 메우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시귀선·유화수·이월영 역, 『고금소총』, 한국문화사, 1998.

유화수·이월영 편역, 『고금소총』, 전통문화연구회, 2014.

2. 단행본 및 논문

강상순, 「조선 전기 성소화의 향유 양상과 존재 논리」, 한국어문학국제 학술포럼, 2013.

김영진, 「한국육담개론」, 김선희 외, 『한국 육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

류정월, 「명엽지해」 평가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7권, 한국고전 연구학회, 2001.

_____, 「성소화의 텍스트향유와 성적 정체성」, 『구비문학연구』 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백진우, 「한문 야담문학 속 논평의 양상과 기능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6,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09.

이강엽, 「바보성소화의 사회문화적 해석」, 『한국민속학』 33, 한국민속 학회, 2001.

이숙인, <정행과 덕색의 개념으로 본 유교의 성담론>, 『철학』 67, 2001, 21면

정지영, 「조선 후기의 첩과 가족 질서 :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 한국사회사학회, 2004.

황패강, 「고소설에 나타난 육담의 의식과 세계관」, 『한국 육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

【Abstracts】

A Study on the Power Relation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Go-geum-so-chong*

Kim Se-ra

The present dissertation goes a step further from the meaning dealt with in preceding studies, which simply assessed *Go-geum-so-chong* as humor or humoristic beauty, and deducts the narrative implications of the male and female power relation between the main characters, in an attempt to make a connection with the social perspective that objectifies and excludes women for the purpose of male satisfaction.

The reason for 'rereading' these works from the position of a female audience living now, not as a reader or writer of the time, is that the story of *Go-geum-so-chong*, in which molestation and violence are routinely perpetrated against lower hierarchy women by men with power, still displays a significant critical consciousness for the situation we live in today.

The things these women experience in the story are not placed in a relationship between offender and victim but reversed into a relationship between a beneficiary and a benefactor, who open their eyes to an act of sex yet unfamiliar to them and thankfully allows them 'to know its joy'. The bodies of women otherized by male Yangban are thoroughly alienated even by the women themselves. Ultimately, the candid gaze toward women by male nobles and the way in which they treat women are revealed without filter, and the women who are displayed through the

stories are totally nonexistent or become completely silent entities.

The subjects that may be disciplined with a dignified voice in the commentary section are those with a lowly social status. Ultimately, the male commentator is silent or, with laughter, sympathizes with the ridiculous and strange behavior of the male yangban who share the same social class, but the males with a lower status than themselves, they trample, criticizing them severely. What the male nobles do to lowly women is show appreciation and have fun, but what the lower class men do to the same women is impart depravity or wickedness. The expression of criticism is too exclusive and discriminating to view it as emphasizing 'admonishment' as a customary or decorative expression.

Key words: *Go-geum-so-chong*(古今笑叢), Alienation of women, Otherization of Women, Beneficiary, Benefactor

이 논문은 2016년 6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7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